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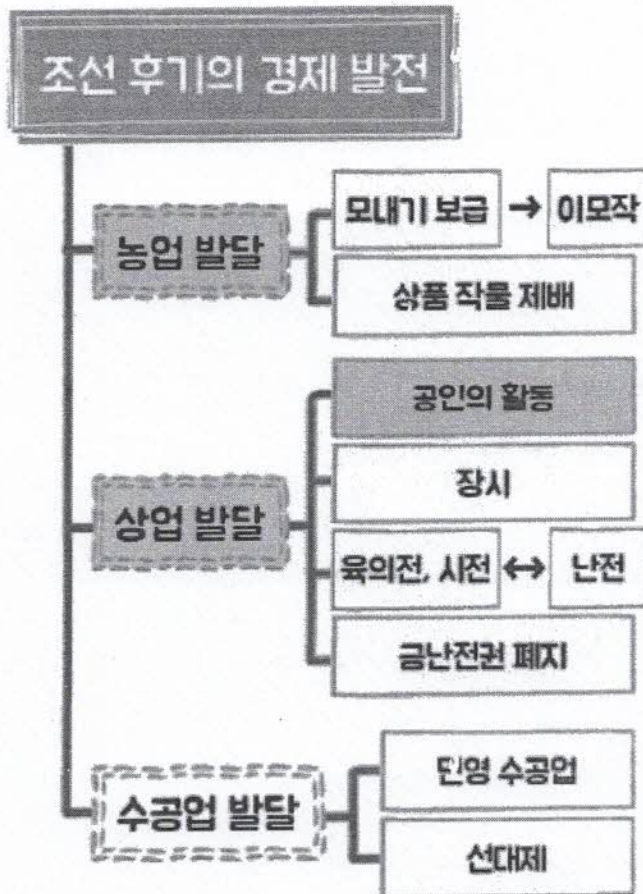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문화

조선 후기에는 모내기법과 상품 작물 재배 등으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촌 사회에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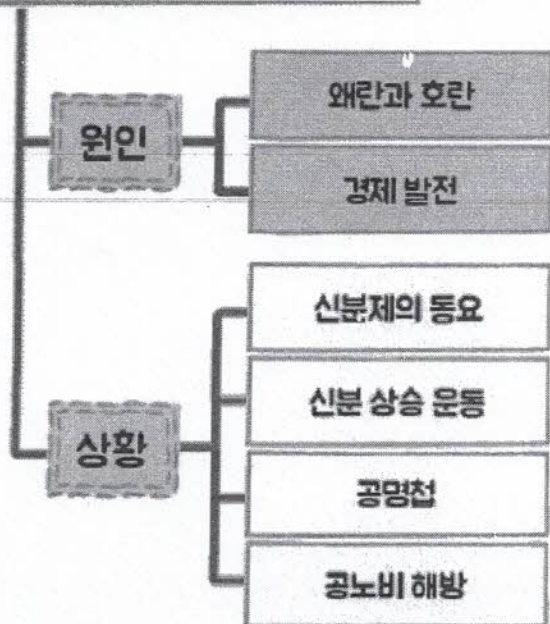
또 왜란과 호란을 거친 후 신분 질서가 크게 흔들렸지요.

학문적인 면에서는 성리학이 현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실학이 등장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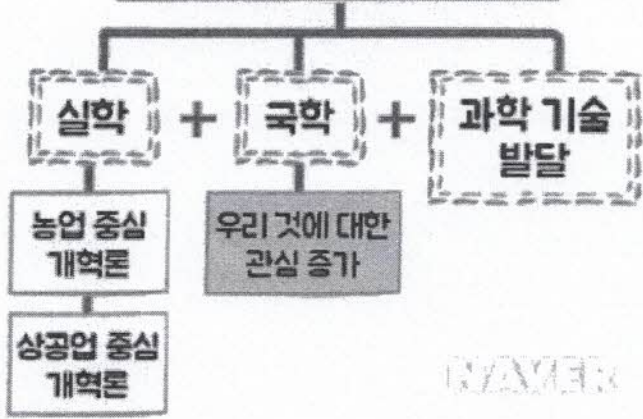
한편 경제적으로 성장한 서민들을 중심으로 서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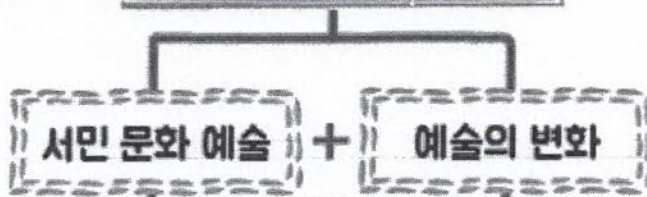


조선 후기 학문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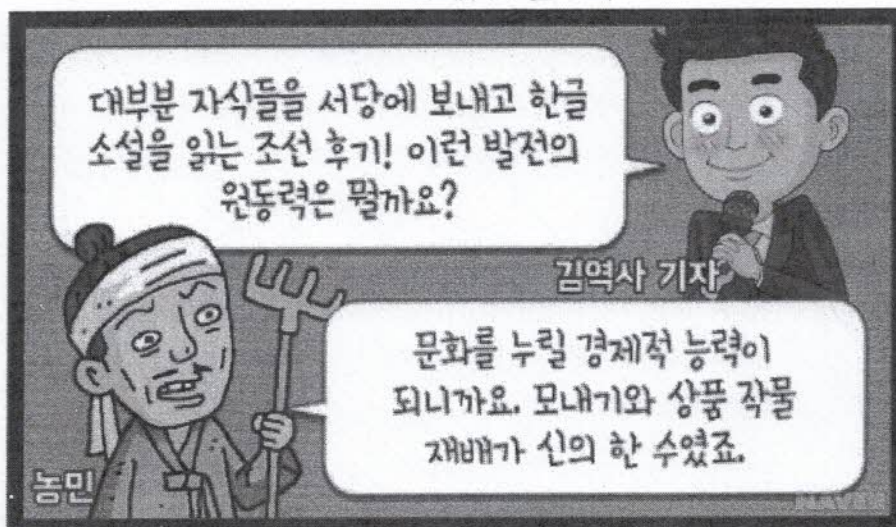
EXAMEN

조선 후기 문화와 예술



한글 소설
사설시조
탈춤, 판소리

한문학
민화
진경 산수화
풍속화
백자
청화 백자



1. 조선 후기의 경제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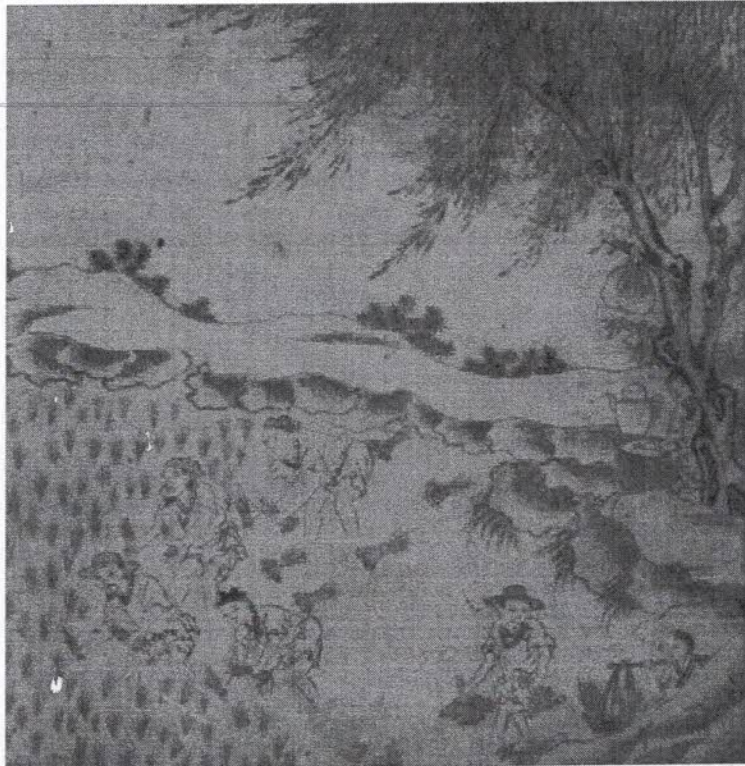
왜란과 호란 이후 조선의 농토는 매우 황폐해졌어. 사람들은 땅을 개간해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데 노력했어.

새로운 농사법도 속속 등장해 조선의 경제는 크게 나아졌지.

농업 발달

모내기법

모내기법은 모판에 볍씨를 뿌려 모를 미리 길러서 논에 옮겨 심는 방법이야. 모를 옮겨 심을 때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맞춰 심기 때문에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덜게 되었지. 결국 한 사람이 농사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어. 또한 모내기법으로 쌀 생산량이 크게 늘었어.



모내기 모습을 담고 있는 「누숙경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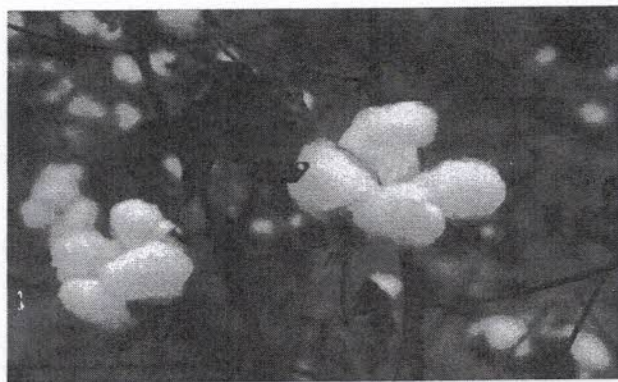
이모작

이모작(二毛作)은 '두 번[二] 식물[毛]을 심는 것'을 말해.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봄에 추수를 해. 모내기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볍씨를 뿌리는 시기와 보리의 수확 시기가 겹쳐서 같은 땅에 연달아 심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모내기법이 실시되면서 이모작이 가능해진 거야.

상품 작물

내가 먹고자 농사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해.

인삼, 담배, 채소, 목화 등이 대표적이야.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했어.



대표적인 상품 작물인 목화

상업 발달

장시

시골에 가면 3일 혹은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이 있지? 이것을 장시라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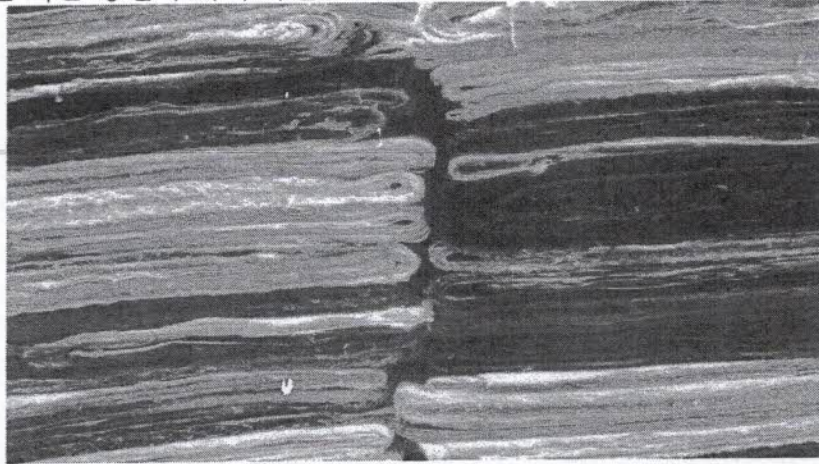
지금은 인구가 많아 항상 가게를 열어두고 이익이 남지만 조선 시대에는 인구가 적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드물어 매일 가게를 열면 손해를 보았어.

그래서 상인들은 물건을 구입해 줄 사람들을 찾아 이동하며 장시를 열었던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장시는 매일 문을 여는 시장으로 변했어.

육의전

육의전은 한양의 종로에서 국가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독점적으로 팔았던 가게야. 명주, 종이, 어물, 모시, 비단, 무명의 여섯 종류를 중점적으로 팔아 육의전이란 이름을 얻었어.

육의전 상인은 다른 상인에 비해 특별한 권력을 누렸어.



한지

시전

시전은 나라에서 설치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전 상인은 시전에서 나라의 감독 아래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을 말하지.

난전

난전(亂廛)은 ‘어지러운[亂] 시장[廛]’이란 뜻이야. 왜 어지럽다고 표현했을까? 난전은 시전이 아니라 개인이 물건을 들고 나와 불법적으로 하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야.

모내기법의 실시와 상품 작물의 재배로 경제가 커진 조선 후기에는 시전만으로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서 전국 곳곳에 난전이 생겼어.

하지만 시전 상인 입장에서는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장을 여는 난전이 미웠을 거야.

금난전권

금난전권(禁亂廛權)은 ‘난전[亂廛]을 금지[禁]하는 권리[權]’를 말해. 육의전 상인이나 시전 상인은 나라에 세금을 냈지만 난전 상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라에서는 시전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난전을 단속했어.

하지만 난전을 단속하면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결국 난전을 금하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정조 때 폐지하게 되었어.

수공업 발달

민영 수공업

조선 전기에는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가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후기에 들어서면 자신의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파는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어.

선대제

선대제(先貸制)는 ‘먼저[先]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貸] 제도[制]’를 말해.

수공업자들의 공장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상인들이 미리 자금과 원료를 제공하고 나중에 제품을 받는 선대제가 유행했어.

2.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

상황

신분제의 동요

조선 후기에는 봉당 정치가 다른 당을 인정하지 않고 쫓아내게 되면서 몰락하는 양반들이 증가했어.

당연히 권력을 가진 일부 양반만이 양반다운 생활을 했고 대다수 양반은 농민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어. 반면 부유한 상민들이 증가해 신분제가 요동치게 되었지.

신분 상승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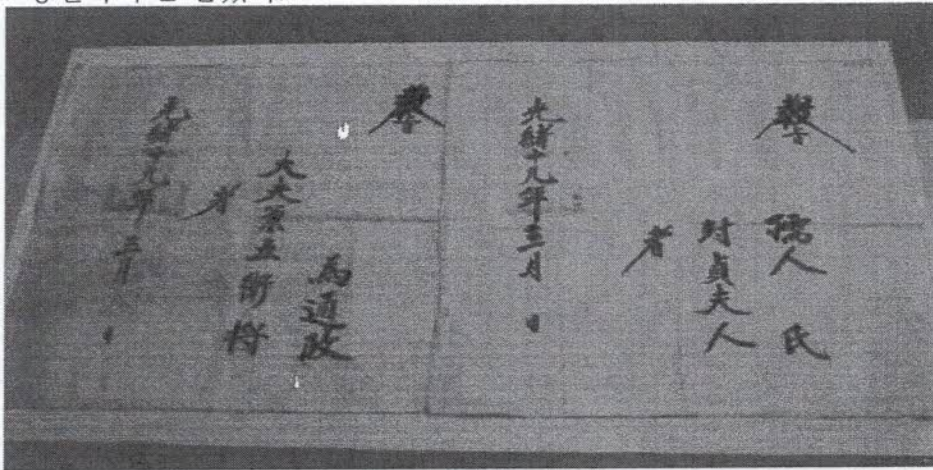
중인 계층인 서얼은 영조와 정조 때 차별이 줄면서 정부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 또 중인들도 자신들의 전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했어. 이러한 현상을 신분 상승 운동이라고 해.

공명첩

공명첩(空名帖)은 '이름 쓰는 곳[名]이 비어[空] 있는 문서[帖]'라는 뜻이야. 왜란과 호란 이후 정부가 부족한 나라 재정을 메우기 위해 발행했어.

모내기법과 상품 작물 재배로 부자가 된 일부 농민들은 공명첩을 사서 양반 신분을 얻었던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양반의 족보를 구입하거나 위조하여 양반 행세를 했어. 결국 양반의 수는 크게 늘고 상민의 수는 줄었어.



공명첩

공노비 해방

노비들도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돈으로 신분을 사서 천민에서 벗어났어. 또 먼 곳으로 도망을 가 노비가 아닌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았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순조는 나라의 공노비를 해방시켜 양인으로 만들어 주었어. 이들은 양인으로서 세금을 내 나라 재정에 이바지하기도 했지.

3. 조선 후기 학문의 발달

실학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성리학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지. 백성의 삶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양반들이 중시하는 성리학에 백성들은 등을 돌렸어.

이 무렵 실증적인 방법으로 현실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학문의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실학이라고 불러.

농업 중심 개혁론

실학자들 중에는 대다수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농촌을 떠나거나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수확량 중 상당 부분을 지주에게 바치는 소작농이 증가하는 현실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어.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이 대표적이야. 이들은 농업 중심 개혁론을 주장해.

상공업 중심 개혁론

실학자들 중에는 상업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도 있었어. 이들을 북학파라고 하는데,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이 대표적이야.

이들은 청과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상공업 발달을 이루어 나라의 부를 키워야 한다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했어.



정약용 초상화

국학

실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 우리 역사, 한글, 우리 땅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국학이라고 해.

역사학 부분에서는 이익, 안정복, 유득공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서술했지.

지리학 부분에서는 이준환, 정상기, 김정호가 활약했으며 신정준과 유희는 한글을 연구했어.



박지원 초상화

과학 기술 발달

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청에 간 사신들은 그곳에서 서양의 발달된 과학 기술을 접하게 되었어.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조선의 과학도 크게 발전하게 되었지.

홍대용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전설을 주장했고, 세계 지도가 들어와 조선의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았어.

4. 조선 후기 문화와 예술

서민 문화 발달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과 상품 작물 재배로 경제력을 갖추게 된 상민층은 이제 문학과 예술을 누릴 만큼 의식이 성장하게 되었어.

여기에는 서당이 널리 퍼져 서민도 기초적인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영향을 끼쳤지.

이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서민 문화가 나타나 널리 퍼졌어.



김홍도의 「서당」에 나타난 조선 후기 서당의 모습

한글 소설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양반의 태도를 비판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비꼬았던 것이 한글 소설의 특징이야.

특히나 서얼에 대한 차별 비판, 탐관오리 혼내주기 등의 내용을 담은 『홍길동전』이나 신분 차별을 극복한 『춘향전』 등이 인기를 끌었어.

사설시조

조선의 시조는 글자 수를 정확히 맞추는 형식미를 중시했어.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사설시조가 등장했지. 서민들의 소박한 삶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사설시조의 특징이야.

탈춤, 판소리

탈춤과 판소리는 춤과 노래, 이야기로 서민들의 감정을 표현한 것들이야.

지방의 장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공연했어. 특히나 탈춤은 양반을 비꼬는 내용이 많아 서민들에게 웃음을 주었어.

예술의 변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서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예술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나타나게 돼.

한문학

양반층이 즐겼던 한문학에서도 양반을 조롱하는 내용이 등장했어. 박지원은 『양반전』, 『허생전』 등을 지어 양반을 비판했거든.

교육을 받은 중인들도 문학 활동을 즐기기도 했어.

민화

백성의 소원을 표현하고 집안을 장식하는 그림으로,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했던 그림이 있어. 바로 민화야.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 다양한 소재가 자유롭게 그려져 있지. 장수, 건강, 합격, 부귀 등 다양한 백성의 소원을 표현한 소박한 그림이야.



「작호도」 까치와 호랑이의 모습을 그린 그림. 까치는 복을 가져오는 동물,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쫓는 동물을 의미해.

진경 산수화

산수화는 풍경을 그린 그림이야. 그럼 진경(眞景)은 무슨 뜻일까? 진짜[眞]경치[景]를 진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전 그림은 중국의 것을 따라 하곤 했어. 하지만 정선은 중국과 다른 우리 경치를 그대로 화폭에 옮긴 진경 산수화를 그렸지.

정선이 그린 「금강전도」, 「인왕제색도」는 참신한 구조와 웅장한 풍경이 인상적이야.

풍속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린 그림이 풍속화야. 대표적인 풍속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을 들 수 있어. 김홍도는 간결하고 소박하게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정감 있게 표현했어. 신윤복은 섬세하고 세련된 그림으로 양반의 풍류와 부녀자들의 생활을 그렸지.



김홍도의 「자리짜기」

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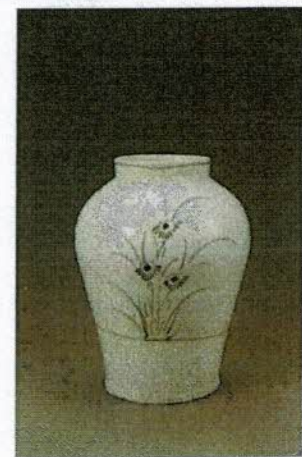
조선 후기에는 형태가 단순하고 꾸밈이 거의 없는 백자가 널리 유행했어. 소박한 아름다움을 갖춘 백자는 서민들도 많이 사용했어.

푸른빛이 도는 화려한 청자는 고려 시대, 소박하고 담백한 백자는 조선 시대라는 것 잊지 마.

청화 백자

백자 중에서 흰 바탕에 푸른 색깔로 장식을 한 청화 백자가 많이 만들어졌어.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문화 (생방송 한국사 9, 2017.04.03., (주)북이십일 아울북)



조선 후기의 청화 백자